

■ 우리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 2005 AMEE 참관을 통하여 본 생각

의학교육학과, 정신과학교실 전 우 택

가. 시작하는 말

2005년 유럽의학교육학회 연례학술대회(AMEE,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Europe)가 8월 30일 부터 9월 3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텔담 RAI Congress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Preconference와 Postconference program까지 포함하면 5일간의 짝 찬 긴 프로그램이었다. 이 글에서는 학회 중 많은 발표와 토론들 속에서 강조되고 있었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의견들과 흐름을 요약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학회 전체를 통하여 느낄 수 있었던 전체적 인상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학 교육을 향한 엄청난 투자들이었다. 우수한 교육만이 의학과 개별 의과대학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일종의 위기의식으로까지 보였다. 각 대학들은 더 우수한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엄청난 인적, 물적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었다. 교육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한 우리 대학 교수님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지만, 세계 각 나라

들도 모두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둘째, 교육의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겨지던 것들도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수정 및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의학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주체들은 변화하는 교육적 패러다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교육과정 및 방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학회에서 강조된 내용들

I. 학생 교육

1. Communication Skill에 대한 강조

환자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여기서 “대화”란 단순히 효과적으로 history taking을 하거나 또는 physical exam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화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환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의사에게 협조적인

환자가 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의사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많은 강조가 주어지는 것은 의사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즉 노인 환자와 어린 아이들 환자와의 대화 및 의사소통이 다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인종, 문화적, 사회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효과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의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들의 의사소통 기술이란 있으면 개입하는데 도움이 되고,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환자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에 나가서 의사 활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만큼,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가는 의학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대학에서 도입한 광혜재교육과정의 임상의학입문(ICM-Introduction of Clinical Medicine) 프로그램 중 일부분에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의 강조

이번 학회에서 강조된 것 중 하나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

logy)와 의학교육의 접목이었다. 전자 정보 통신의 기술 발달은 사회 각 영역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와 의학교육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형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즉, 교수가 일일이 설명하여야 하였던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풍부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의 도입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강의를 더욱 축소시키고, 학생들의 학습이 공간과 시간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 까지가 학교 교수의 기능이고, 그 이후부터는 학생 스스로 ICT를 이용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만일 교수들이 정규 강의나 실습 시간에 다룬 내용 이상의 심화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나 실습의 시청각 자료를 만들면, 그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원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 PBL 교육의 변화

학회의 Post-conference로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의과대학에서 실시된 PBL Workshop이 있었다. PBL을 의과대학의 학습법으로 세계에 알리고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진 PBL 관련 프로그램이었다. Workshop은 본과 2학년의 PBL 수업을 참관하고, 그 대학 PBL 수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마스트리히트 의과대학의 학생 강의는 목요일 오후에 한 번만 있었고, 일주일에 두 번 있는 PBL 수업이 수업의 전부인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1주일 동안 학습할 학습과제를 만들어 내어 이에 따라 자율학습을 실시한 후, 이 결과를 토론하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교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자율학습이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 시설의 강조가 인상적이었다. PBL에 있어 새로운 변화 중 하나는 PBL module에서 다루는 환자 case를 과거에는 문서상의 환자로 하다가, 비디오 녹화 테잎으로 하다가, 이제는 실제 환자를 이용하여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사전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각자 배정된 같은 진단명의 환자들을 만나 history taking과 physical exam을 한 다음, 자신들이 직접 학습 과제를 만들어 다음 시간에 그 사례를 가지고 PBL수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조기 임상 노출 교육 목표와 PBL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었다. 새로운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4. Research Tutor의 활동

아무런 기본적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도 의학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의학교육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예”라고 답한다. 그리고 그러한 호기심은 가급적 어리고 젊을 때부터 격려되고 강조되어야 더욱 잘 계발될 수 있다

고 본다. 아직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왜?” 또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질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의학 교육에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PBL 교육에 Tutor가 있는 것처럼, 학생 연구를 지도하기 위한 Research Tutor 역할을 담당한 연구 교수들이 있어 그들이 학생들의 연구를 지도하고, 동시에 학생들을 연구 보조 인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 대학에서도 고려할 만한 제도였다.

5. 현실 중심의 leadership 교육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의 강조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었다. 그런데 이번 학회에서는 특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의 교육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이란 정치적 의미에서의 리더십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 측면의 리더십으로 강조되며, 특히 병원 임상과 경영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우리 학교의 교육에서도 리더십 교육이 이론적 측면에서 좀더 실제 체험형으로 바뀌어 나가야 함을 시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II. 학생 지도(Student Affair)

1. 학생 Professionalism 교육의 강조

사회와 환자는 의사들에게 최고의 도덕적

기준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최고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보기보다, 엄격하고 잘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원칙을 가지고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의과대학이 다른 단과대학들 보다 그 학사 행정과 학생 관리에 있어 엄격성을 지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에 따라 의과대학들은 수업 시간, 또는 학교 안, 학교 밖에서의 행동에 있어 미래의 의사로서의 도덕성, 또는 품격에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엄격한 관리되고 처벌되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소위 학생 행동 수칙(Student Behavior Code) 제정을 통하여 명문화시키고 있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엄격성이 어느 대학보다 더 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학생과 교수 모두가 알고, 그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리도 그러한 학생 행동 수칙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

이번 학회에서 강조된 것 중 하나는 의과대학의 문제 학생들에 대한 관리 문제였다. 어느 나라 의과대학이나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학시키고 공부를 시키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는 성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따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심한 탈진 (Burn Out) 상태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이들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문제를 모든 의과대학이 가진 고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최상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에서 그들의 학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시험을 쳐서 평가하는 것과 함께 학교의 업무 중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체 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위한 학교의 배려이다. 즉 동아리 활동, 학생 축제 등 다양한 학생 활동들이 학교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의 업무로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런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 학년 초에 있게 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등에 학생들에게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교육시키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는 것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때 다루는 내용으로는 새로운 효과적 학습 전략, 스트레스 관리, 시간 사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문제 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학생을 유급이나 제적 등으로 처리하는 것만을 능사로 하지 않고, 정교하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학교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또는 전문가를 학교가 연결하여 주어서 학생이 자신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학생을 담당하는 학교 보직자의 책임 만으로 간

주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담하는 학교의 학생지도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II. 교 수

1. Faculty Professionalism의 강조

그동안 의학교육에 있어 professionalism이란 주로 학생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이번 학회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수들의 professionalism이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다. 결국 학생들은 교수들의 행동을 보면서 professionalism을 배우므로, 교수들의 행동이 얼마나 professionalism에 적합한가가 그 교육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수들이 의사로서의 professionalism에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보여, 그것이 학생 교육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되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수들의 언행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교수들의 professionalism을 의과대학의 숨겨진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이라고 불리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2. 교육 관련 위원회와 구성 위원들을 활성화하는 방법

세계 어느 의과대학이라도 교육은 가장 큰 과제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교육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그들의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 고민거리들이었다. 그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교육 관련 위원회들의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토론되는 자리가 있었다. 거기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에 필요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제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중요 핵심 교수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일을 잘 담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대부분 그런 교수들은 학교의 교육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위원회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 관련 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그 위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위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그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둘째, 위원들이 그 위원회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열정이 있어도, 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들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결국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원이 된 교수 분들에 대한 자기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위원회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위원회와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것이다. 일단 한 번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면, 임기 동안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해달라는 식으로 위임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1년이나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그 위원회가 원래 목표를 위하여 잘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긍정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3. 교수들의 교육업적 평가제도의 정착

실제로 의대 교수들의 교육 업적에 대한 평가 제도는 각 나라와 대학마다 독특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교수들의 교육 참여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 그와 관련되어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 보고 되고 토론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뮌스터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fee for service 개념의 incentive를 주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트랙 시스템을 이번 가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들과 학교 프로그램의 활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대상이 바로 “학생”이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과 평가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학생”은 잊어버리는 수가 많았다. 이번 학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그 “학생”들을 계속 의식하고, 그 학생들을 교육 관련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학생들에게 너희는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며,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학회 마지막 시간에 직접 학생들이 앞에 나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발표의 마지막을 그 두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We are here!, We are real!, Use us!”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교수들이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아는 것, 그것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자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자리였다.

다. 마치는 글

의학교육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학